

이혼경험에 대한 질적분석 - 부모의 경험과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

유 정 이[†] 금 명 자 이 지 은 이 호 준 김 수 리
안양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원 가톨릭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원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이혼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 역할은 어떠했는지,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혼을 경험한 총 8명의 부모를 면접하였으며 그 자료를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의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혼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와 폭력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 과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혼 사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였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었으며, 대체로 자녀들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것이 전형적 경험이었다. 이혼 후의 어려움에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양육의 전담이 전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매우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혼을 경험한 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초점으로 심층면접과 질적 분석으로 탐색하였다는 것과 이혼 과정 중 자녀와 관련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이혼, 이혼과정경험, 부모-자녀관계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유 정 이, 안양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안양대학교
Tel : 031-467-0995, E-mail : jiryu@anyang.ac.kr

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이혼 과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통계청, 2004)에 의하면, 2003년 한해 167,100쌍이 이혼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하루평균 458쌍이 이혼하는 결과이며 이는 2002년(통계청, 2003) 145,300건에 비해 한 해 동안 15%가 증가된 것이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1.3세 여자 37.9세로, 자녀가 아동기 후기 내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한 이해도 변화하고 있다. Goode(1952)와 같이 이혼을 병리적인 현상 혹은 일탈적인 사건으로 보던 시각에서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혼을 개념화하거나 새로운 자기 발견과 해방의 기회로 보는 입장(Weiss, 1975)으로 변화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이혼이 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가족 해체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자녀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을 결정할 때에 자녀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변화순, 1997; Commaile, 1982; Pitrou, 1994; Thry, 1993).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사례연구(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 2001; 김수정, 권신영, 2001)를 비롯하여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생애사 연구(김승연, 2001)가 진행되는 등 이혼의 관점을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분석(김승경, 강문희, 2005; 유희정, 2005)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Ahron과 Rodgers(1987)에 따르면 이혼 전 단계에서 부부하위체계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이혼의 법적 과정을 거쳐 완전한 분리에 이르지만 이전 배우자 체계와 부모-자녀 체계는 여전히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 배우자 상호관계가 완벽한 친구

관계 혹은 협조적인 동료관계로 남을 수 있을 때 이혼은 기능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 상호간 화가 났거나 분노한 원수 관계이거나 완전히 끝난 관계라면 이혼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이혼 이후의 적응성을 낮춘다. 다시 말해 이혼 이후에 이들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적응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부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적응에 차이가 있듯이 부모-자녀의 관계도 역시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 질이나 이혼 과정의 불화의 정도가 이혼 자체보다 이혼 후 자녀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박한샘, 2003; 주소희, 2003; Wolchik, Wilcox, Tein. & Sandler, 2000).

이혼 부모가 직면하는 가장 비판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과제 중의 하나는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 의무와 책임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협력적 부모역할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다(장혜경, 민가영, 2002).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바람직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혼의 개념화란 갈등상황에 처한 자녀들에게 이혼이 무엇이며, 이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혼 후의 가족구성의 변화, 달라진 생활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어머니의 취업 등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에 대한 일들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경혜, 김영희,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에 이혼과정에 대한 연구나 탐구에서 자녀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

혼과 더불어 부부체계는 해체되었지만 부모-자녀 체계는 이혼과정 내에서도 유지된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결별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둔 이혼 부부는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이혼 전과는 달리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자녀 등 삼자 간에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수립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방선옥(1992)에 의하면 이혼자들이 요청하는 상담 내용으로 1순위에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2순위에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 3순위에 대인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나타나 역시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가 이혼을 경험한 자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박한샘, 전명희(2003)의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주요 상담 제기 영역은 1순위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만남 및 관계 문제, 2순위 이혼 및 비양육부모에 대한 설명문제, 3순위 자녀적응에 대한 염려, 4순위 자녀양육의 부담감 호소 순으로 나타났다. 김순옥(1993)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70.6%가 이혼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가족생활 교육이나 상담, 이혼에 관한 법률상담,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혼은 결혼이나 일상적인 가족을 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특히 연장된 부모 역할의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혼을 부부간의 관계 중심으로 보면 이혼의 과정에서 자녀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려 자칫 자녀들이 방임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문현숙, 김득성, 2000).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로 관용적인 관점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혼 과정에 남은 자녀에 대해서는 걱정만 할 뿐, 부모가 어떤 역할을 어떤 내용으로 수행해야 될 지가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있지 않다.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부모의 큰 걱정 중 하나가 자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당시에는 이혼 과정 자체에 매달리기 때문에 미리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혼이 청소년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혼을 부부간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가족의 문제로, 결혼의 관점에서 보다는 부모 역할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혼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대인사회적 문제, 가족문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등 4 가지 영역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자녀와의 문제는 대표적 가족관계 문제에 속한다(한경혜, 1993; 성경현, 1998). 정서적 이혼, 법적 이혼, 경제적 이혼, 공동부모역할 이혼, 지역사회 이혼 및 정신적 이혼 등 이혼 과정을 6 단계로 분류한 Bohannan(1970)의 분류에도 법적 이혼과 공동부모역할 이혼의 구체적 내용에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이혼을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혼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청소년 상담의 상당 수의 사례가 부모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가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혼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정에서 부모들이 인식하는 부모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

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부모 역할 수행으로서 부모들이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또한 부모-자녀의 관계가 이혼과정에 따라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해 요구되는 도움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혼의 과정을 이혼 이전, 이혼과정, 그리고 이혼 이후로 분류하여 이 세 단계에서 부모는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이혼과정에서 부모의 경험은 어떠한가?
2. 이혼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역할은 어떠한가?
3. 이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의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이혼을 경험한 부모들’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청소년상담실과 이혼관련기관에 면접조사 참여의사를 문의하여 동의를 구한 후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8명의 부모를 면접하였으며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도구 및 면접자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질문지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탐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 및 상담 전문가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의 질문목록으로 구성되었다. (1) 이혼의 원인 및 이혼과정에서의 내용 (이혼의 원인, 경제적 수준, 양육비 지원 여부 등) (2) 이혼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경험 (이혼의 결정, 이혼과정의 순조로움 정도, 심리적 상태, 대인관계 등) (3) 이혼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 부모역할과 관련된 경험 (이혼과정에서의 자녀 고려 정도, 이혼 이후의 자녀양육 양상, 이혼 과정에서의 자녀의 변화 등) (4) 이혼과정에서의 도움경험 (도움요청 여부, 도움받은 내용, 바라는 도움 내용).

표 1. 연구대상

	연령	성별	이혼시기	자녀	자녀와 동거여부
사례 1	59	여	3년전	아들(30대) / 딸(31세)	비동거
사례 2	40	여	4년전	아들 (중3) / 아들 (중2)	동거
사례 3	47	여	6년전	아들 (고2) / 딸 (중2)	딸과 동거
사례 4	37	여	3년전	딸 (초6) / 딸 (초2)	비동거
사례 5	43	여	3년전	딸 (고2) / 딸 (중1)	비동거
사례 6	52	여	4년전	아들 (26세) / 아들 (24세)	동거
사례 7	42	남	6년전	딸 (중3) / 딸 (초2)	동거
사례 8	44	여	1년전	딸 (고2) / 딸 (중3)	동거

면접자

면접자는 총 4명으로, 상담관련 박사이며 상담심리전문가인 1명, 상담관련 박사과정생이며 상담심리전문가인 1명, 상담관련 박사과정생이며 상담심리사인 1명과 상담관련 대학원재학생 1명이었다. 면접의 신뢰도를 위해 면접자들은 3회의 오리엔테이션과 협의회를 가졌다.

자료수집 절차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확인작업을 거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관에서 면접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1사례이며, 나머지 6사례는 대상자들의 집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 50분 이상 120분까지 면접조사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Hill, Thompson과 Williams(1997)의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이하 CQR)를 사용하였다. CQR의 전체과정은 자료에서 결론이 추론되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추론의 과정들이 1명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5명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다. 연구팀에서는 각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이끌어내며, 이렇게 도출된 결과들은 1-2명의 감사자들에 의해 점검되고 다시 연구팀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정자와 감사자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정에 참여한 평정자들

은 연구자들 중 3명(상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전문가 1명, 상담관련 박사과정생이며 상담심리전문가 1명, 상담관련 박사과정생이며 상담심리사 1명과 상담관련 석사학위소지자이며 상담심리사인 1명 등 총 4명이었다. 감사자로는 상담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전문가 1명과 가족치료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2명의 감사자들은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과정에서 평정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 절차

자료준비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총 8사례에 대한 완전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영역코딩(Dveloping Domains)

수집된 자료들의 개념적인 틀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유사한 주제에 관한 정보자료군(information cluster)’인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연구자가 작성한 각 사례의 축어록을 평정자들이 개별적으로 읽고 판단하여 사례별로 영역을 결정하고, 함께 모여서 사례별 영역과 전체적인 영역 결정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영역들이 결정되었다.

중심 개념 코딩(Construction Core Ideas)

영역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으로, 자료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각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중심 개념을 요약한 다음, 3명의 평정자들이 모여서 영역별 중심개념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차이점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감사과정(Auditing of Domains and Core Ideas)

2인의 감사자가 축어록과 평정팀의 영역/중심개념 합의 자료를 확인해서, 원자료가 정확한 영역에 존재하는지, 그 영역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발췌되었는지, 중심개념을 말로 표현한 것이 간결하고 원자료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였다. 감사이후에 발견된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평정팀에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였다.

교차분석(Cross Analysis)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들을 범주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사례별로 각 영역에서 나타난 중심 개념들이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의 범주들로 묶일 수 있는가를 확인, 범주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범주에 사례의 빈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general*) 범주는 ‘모든’으로, 50% 이상 나타나는 전형적인(*typical*) 범주는 ‘전형적’으로,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변동적인(*variant*) 범주는 ‘드문’으로 분류, 표시하였다. 단지 한두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범주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제외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에 제외하였다.

감사과정(Auditing of Cross Analysis)

교차분석 후, 다시 감사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평정팀의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역시 평정팀과 감사자의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 다시 평정팀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연구결과

결과에서는 CQR 분석 결과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는 이혼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혼 전, 이혼과정, 이혼 후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혼 과정에서 부모역할 수행 태도나 전략,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어떻게 알리거나 처리했는지,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부모-자녀 관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 경험과 그에 따른 도움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혼 경험

이혼 전의 경험은 이혼의 원인, 이혼 전 배우자와의 관계, 이혼 시의 심리상태 및 이혼을 망설임 이유로 구분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에 이들 네 가지 영역에 따라 피면접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혼의 원인으로는 모두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폭력이 이혼의 전형적인 원인으로, 배우자가 원가족과의 미분리, 외도, 성격차이 등의 드물지만 그 원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의 원인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중복적으로 이혼에 기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번 사례의 경우 시댁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랜 별거의 과정을 거쳐 이혼을 결정한 것이 그 예이다. 8개의 사례 중 6 사례가 2개 이상의 원인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문제와 폭력이 각각 4개의 사례에서 나타났고, 원가족과의 미분리로 인한 어려움이 3사례, 배우자의 외도,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이 각각 3사례에서 나타났다.

이혼하기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세 가지로

표 2. 이혼 전 경험

영역과 범주내용	빈도
이혼의 원인	
경제적인 문제	전형적(4)
폭력	전형적(4)
원가족과의 미분리	드문(3)
외도	드문(3)
성격차이	드문(3)
이혼 전 배우자와의 관계	
시부모와 갈등상황-남편역할 부재	드문(2)
관계 단절	드문(2)
배우자의 무시, 폭력	드문(2)
이혼 전 심리상태	
새로운 생활에 대한 희망	드문(2)
힘들고 괴로운 정서(힘들고 불안함)	드문(2)
이혼을 망설임 이유	
자녀에 대한 걱정	전형적(4)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	드문(2)
사회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	드문(2)

정리되었다. 이혼 전에 이미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배우자의 무시와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 남편이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시댁과의 갈등 상황에 있었던 것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유형들은 각각 두 사례씩에서 나타나 전형적인 유형은 없었다. 한편 이혼 전의 심리상태는 “너무 너무 죽고 싶은 마음뿐” 일만큼 괴로운 정서상태와 “뭔가 빨리 빨리 정리해서 안정을 찾고 싶다”와 같이 이혼 이후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 등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나 전형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이혼

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미루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4개의 사례에서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이유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도 이혼을 망설이게 하였다.

...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만은 저런 결손가정의 대열에 끼어서는 안된다, 내가 모든 걸 참고 이겨내고 내가 내 업보로 삼고 아이들한테 만큼은 저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 대열에 끼는 이혼 가정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나쁜 조건이 다 나한테 닦쳤더라도 내 자식 만큼은 그 대열에 끼게 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1번 사례)

가정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도 똑똑한 애다 보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고 어떤 관공직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이혼도장 선불리 쓰기가 싫더라구요. 부모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봐. (2번 사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모 자신들의 경험이 힘들더라도, 이혼이 자녀들의 사회적 진출에 걸림이 될까봐 또는 자녀들이 이혼가정의 자녀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번 사례는 종교적인 이유로, 1번 사례는 교육받은 자신의 가치관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던 경우가 두 사례에서 나타났다.

이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혼 과정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자녀의 양육권 결정 과정 및 이혼 사실에 대해 자녀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등으로 정리하였다(표 3). 이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네 가지로 나타났으나 전형적인 계기는 없었다. 사례 중 드물지만 나타난 계기들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없다는 생각과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재판이나 경제적인 파산과 같은 외부적 요인 및 별거나 가출 상태에서도 배우자가 계속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주장함에 따른 확실한 법적 분리의 필요성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배우자의 대한 실망 및 법적 분리의 필요성의 예들이다.

제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인제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중략> 아들이 신고자가 됐는데 경찰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패륜아가 거기서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됐고. (1번 사례 -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기가 아직은 법적으로 터치할 권리가 있다구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구 그렇다면 그것마저 끝내야겠다. 이거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으면 지금쯤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도.. <중략> 완전히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구. (6번 사례 - 법적인 확실한 분리의 필요성 / 배우자에 대한 실망)

표 3. 이혼 과정의 경험

영역과 범주내용	빈도
이혼의 결정적 계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드문(3)
배우자에 대한 실망, 완전한 희망없음	드문(3)
외부적인 요인	드문(3)
법적인 확실한 분리의 필요성	드문(2)
이혼과정의 대처 전략	
도움없이 혼자서 감당, 결정	드문(3)
현실적 대처(경제력, 재판)	드문(3)
인지,정서적 대처	드문(2)
단호한 분리,단절	드문(2)
양육권 결정 과정	
상호작용을 거친 합의 도출	드문(3)
합의 도출 실패 - 아이들을 이용한 일방적 결정	드문(2)
합의 불가능-비양육부모의 부재	드문(2)

이혼을 결정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식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혼자 삭히고 혼자 이렇게 그냥 참고” 하면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3사례, “헤어질 마음으로 집안에 현금 동원할 수 있는걸 다 긁었다”거나 “밤에 몰래 나와 그 이튿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3사례에서 나타났다. 또 두 개의 사례에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나 주위 동료들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심리적으로 대처해나갔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자녀나 배우자와의 연락을 단절하는 대처 전략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처 전략들도 전형적인 유형은 없었고, 몇 개의 사례에서만 발견되는 드문 빈도 유형만이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결정에 따른 자녀 양육권의 결정 방식으로는 쌍방의 배우자나 친족간의 합의로 양육문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결정한 방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나 이혼결정 과정에 자녀를 직접 개입시킨 방식 및 한 쪽 부모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무관심으로 합의과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형적인 결정방식은 없었으며 모두가 드문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은 합의 도출의 사례와 합의 실패로 인해 자녀를 앞세운 사례의 예들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빠랑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빠도 키울 수 있고 엄마도 키울 수 있고 그런 됐을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7번 사례 - 상호작용을 거친 합의도출)

법정에서 큰딸을 법정에 세우면서 판사 앞에서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 했어요. (5번 사례 - 합의도출 실패 - 아이들을 이용한 일방적 결정)

이혼 후의 경험은 심리, 경제, 사회적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및 인생 계획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확인하였다. 정서적으로는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 모두 나타났다지만 무미건조해지거나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더욱 전형적인 것이었다. 다음은 이혼 이후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예들이다.

표 4. 이혼 이후의 경험

영역과 범주내용	빈도
이혼 이후 심리 상태	
부정적- 외로움.불안	전형적(5)
긍정적-편안함. 자신감. 활력	드문(3)
이혼 이후 경제적 상태	
최하위로 지각함	전형적(4)
비교적 경제적 기반 양호	전형적(4)
사회,부모의 도움으로 나아짐	드문(2)
이혼 이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기반 있음	전형적(4)
사회적 지지기반 약화-관계의 위축	드문(3)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	
상호작용 전혀 없음	전형적(4)
자녀문제로 실랑이	드문(3)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	
적극적 상호작용	전형적(4)
관계의 어려움(관계단절, 소원)	드문(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증오, 원망	드문(3)
이혼 이후의 인생계획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드문(3)
자녀 때문에 재혼 계획 안 세움	드문(2)

처음에는 그때 내가 가족들에서 빠져 나왔잖아요. 내도록 살던 우리 속에서 빠져 나오면 혼자잖아요. 그 외로움도 많이 느꼈어요. (5번 사례 - 부정적 정서)

한동안 힘들 때는 진짜 말하면서 그냥 눈물도 안나오고.. 네, 건조했었어요. 이혼 당시부터 3년 동안은 무미건조 했었어요.(2번 사례 - 부정적 정서)

지금도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졌어요. 마음에서는 참 편안해요. (6번 사례 - 긍정적 정서)

이혼 이후의 경제 상황은 4사례가 최하위의 경제수준이라고 스스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4사례는 비교적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제도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나아진 경우가 2사례 있었다.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랬을 때 진짜 돈이 없어서, 쌀도 없고 해가지고.. <중략> 모자가정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조금 나오는 줄 알았는데 현물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쌀, 부식, 애들 급식비. 그것만도 감지덕지더라고요. (2번 사례 - 최하위 경제수준으로 지각)

한편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이혼 이후에도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있는 경우가 4사례였고, 반대로 관계가 위축되면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해진 경우가 3사례에서 나타났다.

한번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해서 의논이 될 상대인거 같아 얘기했는데 그걸 흥을 보고..<중략>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얘기는 들어주는 거 같은데도 너무 천지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리고 아, 말하기 싫다 이러면서 끊어버려요. (2번 사례 - 관계위축)

한편, 이혼 이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일체의 상호작용이나 왕래가 없는 경우가 4사례, 여전히 자녀를 사이에 두고 약간의 실랑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3사례 있었다.

돈 때문에 몇 번 연락했지. 양육비 교육비 준다고 해놓고 왜 안주냐. 근데 항상 통화하고 날 때마다 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 사무적으로 대하니까. 애들 문제 통화해봤자 도움도 안되고. (8번 사례)

그리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에 적극적인 경우가 4사례였는데, 이는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4번 사례는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나 엄마가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학원이나 과외를 챙기고 학교에 관련된 일에도 참여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며,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혼을 거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였고 3개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또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게 된 경우도 3사례에서 나타났다는데 이것 또한 자녀와의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났다.

작은애하고는 같이 밥 먹고 공부같이 하고 TV보고 놀이터 가서 같이 배드민턴 칠 때도 있고. 큰애하고는 운동도 하고 공부도 같이. (7번 사례 - 적극적 상호작용: 동거)

방학 때 데리고 있다. <중략> 엄마한테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으니까 항상 용기있게 행동해. (4번 사례 - 적극적

상호작용: 비동거)

한 1년 동안은 아예 소식을 끊고 살았어요. 요근래 연락했으니까. (5번 사례)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거는 제가 약간 느끼는거 같아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안그러겠지 생각은 드는데 떨어져 있으니 까 후시나. (1번 사례)

저를 증오해요. 미워하고.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틀어졌다고 생각해요. (3번 사례 - 동거)

몇 번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구요. 나를 원망하면서, 큰 딸이. (5번 사례 - 비동거)

이처럼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자녀 관계양상도 변화를 갖게 되었고 동거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좀더 긍정적 방향으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관계가 괜찮더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분리나 단절감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이혼 이후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드물지만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3개의 사례에서는 뭔가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싶어하는 희망적 기대가 나타났고 2개의 사례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재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 이후 인생계획에서도 자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혼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이혼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자녀 삼자의 관계 양상, 부모역할 수행 전략, 이혼과정에 대한 자녀 배려 태도, 이혼 이후의 자녀와의 관계, 부모가 지각한 현재 자녀의 상태 및 이혼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 여섯 가지로 분석되었다(표 5). 우선, 부-모-자녀 삼자의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에 자녀를 끼어 넣는 양상과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분리한 양상 등 두 가지가 세 개의 사례에서 나타난 유형들이었다. 다음은 이들 양상들에 대한 예이다.

아빠가 아이한테 계속 전화를 한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라.<중략> 가서 납득을 시켜야했더라구요. 엄마가 이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빠가 얘기하는 거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고 엄마는 이만이만 하잖나, 아빠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아니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피해는 안준다든가 이런 상태가 아니지 않나, 살면 살수록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우리끼리 마음 편하게 살자. (6번 사례 - 부모관계에 자녀 끼어 넣기)

시댁하고 애들은 자꾸 왕래 시키는데, 좋은 방향으로 애들 입장에서 눈높이로 설명을 하면서, 이다음에 니네가 장가 가거나 뭐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는거 삼촌 있다는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중략> 원수진 일 하나도 없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남이 됐지만 니네들은 엄

표 5. 이혼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영역과 범주내용	빈도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	
부부관계에 자녀 끼워 넣기	드문(3)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분리	드문(3)
부모 역할 수행 전략	
주위 자원 활용 적극성	드문(2)
본인의 헌신, 희생의 적극성	드문(2)
체념 등 소극성	드문(2)
이혼과정의 부모-자녀관계	
이혼사실의 일방적 통보	전형적(5)
자녀의 입장 배려	드문(2)
자녀에 입장 배려 하지 않음	드문(2)
이혼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짐	드문(2)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	
적극적 상호작용	전형적(4)
관계의 어려움(관계단절, 소원)	드문(3)
자녀의 부모에 대한 증오, 원망	드문(3)
현재 자녀의 상태 -부모가 지각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전형적(4)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	전형적(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부모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 경험	전형적(4)
긍정적인 변화(편안함, 독립심)	드문(3)
부정적 성격 및 행동의 변화 생김	드문(3)
장래(결혼, 진로)에 영향 끼침	드문(2)
별다른 영향 없음	드문(2)

마 자식이고 아빠 자식이고 <중략> 천륜 이니까 언젠가는 아빠가 후회하고 니네들한테 잘 할날이 있을거다. (2번 사례 -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분리)

이혼 전후의 부모역할 수행 전략에는 주위 자원을 활용하는 적극성과 헌신적 태도와 희생을 보이는 적극성 및 체념과 최소한의 태도만 보이는 소극성 등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다음에는 그 예들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집에 많이 있는 편이었죠. 큰애한테도 작은애한테도 필요할 거 같아서. 한 2-3년. 큰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집에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7번 사례 - 본인의 헌신, 희생적 적극성)

애들 문제가 걱정이 되서 친정 옆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주다시피 했죠. 지금도 친정 옆에 살아요. (8번 사례 - 주위 자원 활용 적극성)

내가 아무리 보듬어도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애들한테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5번 사례 - 체념 등 소극성)

이혼 과정에 대한 자녀 배려 태도에는 이혼 사실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전형적인 유형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드물지만 자녀의 입장을 배려하였거나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였거나 이혼에 대한 대화 정도는 나누는 태도들이 나타났다.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원해지는 어려움과 자녀가 부모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유형이 드물지만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한 현재의 자녀의 상태는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적응의 어려움은 자녀들이 우울감과 의기소침, 상처받은 정서 경험을 보인다는 것이었고 비교적 적응이 잘 이루어진 경우는 이혼이 자녀들에게도 편안함과 독립심을 갖게 하고 빨리 칠들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한 사례들이었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내성적이라 말도 안하고 이러는 애가 2학기 때는 완전히 그냥 뭐 학원도 다 중단했지 의기소침해 진거야 그리고 사람도 좀 피하고 (4번 사례 - 부정적 정서경험)

일단은 아빠하고 안부딪히는 게... 아이들은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6번 사례 - 긍정적인 변화)

독립심이 강해지지요. <중략> 어려도 그 시련 겪으면서 크기 때문에 절대 나쁜 거는 아니에요. (1번 사례 - 긍정적인 변화)

다시 이혼이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한 결과,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전형적 영향이었고, 드물지만 긍정적 변화, 부정적 성격과 문제 행동으로의 변화, 결혼이나 진로 등 장래에 영향을 미쳤으며 별다른 영향이 없음 등이 나타났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문제를 일으켜서... 어울려서 돈을 막 쓰면서 나쁜 짓 해가지고 파출소 두세 번 왔다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5번 사례 - 부

정적 성격과 문제 행동으로의 변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으나 그랬더니 내가 이런 저런 거 몰라가지고 헤맬 때 안타까웠나봐요. 그렇게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2번 사례 - 장래의 영향)

나는 요즘 애들이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그런 부분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학교에 그런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은연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번 사례 - 별다른 영향 없음)

이혼 경험에서의 어려움 및 도움경험

이혼을 경험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혼 이후의 어려움, 적극적 도움 요청 여부 및 대상별 도움 요청 정도 및 원하는 도움의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에는 관련 전문가, 친인척, 친구나 이웃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이혼 이후에 겪는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전담으로 전형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드물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 대인관계의 어려움들이 나타났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좀더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 그 애를 밀어서 키워야 다 같이 좀 발전하는데, 제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 밀어준다면...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6번 사례 - 경제적 어려움 / 양육 전담의 어려움)

아이문제가... 이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표 6. 이혼경험에서의 어려움 및 도움 경험

영역과 범주내용	빈도
이혼 이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전형적(5)
양육 전담의 어려움	전형적(4)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어려움	드문(3)
대인관계의 어려움(불신, 단절, 위축)	드문(3)
적극적 도움 요청 여부	
도움 요청을 함	전형적(5)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음	전형적(5)
도움경험 내용 - 관련 전문기관	
적절한 도움을 받음	전형적(5)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함	드문(2)
도움경험 내용 - 친인척	
적극적인 도움 받음	드문(3)
전혀 도움 없음	드문(2)
도움경험 내용 - 친구나 이웃	
도움 받음	드문(3)
바라는 도움의 내용	
경제적인 도움	전형적(4)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도움	전형적(5)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애를 봐야하고. (2번 사례 - 경제적 어려움 / 양육전담의 어려움)

가끔 회사에서 뭘 써내야 할 때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이혼했다고 말하는 게 직장생활 하는데 도움은 안 되잖아요. (8번 사례 -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어려움)

아무도 못 믿는 거 남자를 만나도,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변한 거 같다, 사람을 못 믿는 거,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믿는 거지. (4번 사례 -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외부로 도움 요청을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기관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각각 5사례씩 나타나 전형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도움을 요청한 기관에는 쉼터, 재판관련 기관, 국가기관 등 관련전문기관을 전형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드물지만 친인척과 친구, 이웃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한편 이혼 후 부모들이 원하는 도움의 내용에는 전문적 도움이나 경제적 도움 모두 전형적인 도움 요청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이미 이혼을 경험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하고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혼의 경험을 이해하고 특히 이혼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역할은 어떠했는지, 또한 이혼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풀어놓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생생하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경제적인 문제와 가

정의 폭력이 전형적인 이혼의 원인이었다. 또한 드물지만 외도나 원가족과의 미분리 등의 이유들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 부부들이 쉽게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들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혼을 망설임 이유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전형적인 이유였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치관 혼란 등이 드물지만 나타났다.

이혼의 결정적 계기나 대처전략, 양육권 결정 과정 등 이혼 과정에 대해 확인한 영역에서는 전형적인 유형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드물지만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났다. 이유로는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계기와 전략들이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혼 결정의 계기로 나타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변화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통념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가정과 부부 관계가 자녀에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례가 8 사례 중 3 사례에서 나타났다. 자녀 양육권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3 사례에서는 합의에 의해 도출되었지만 나머지 5사례에서는 합의 실패와 불가능 등으로 합의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경제적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이라는 이혼 이후의 어려움이 자동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이는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예견된 결과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혼 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양육권 합의가 이혼 후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혼 후 부모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물론,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이혼을 경험한 자들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 이후의 정서적 상태는 예상했던 대로 외로움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전형적이었으나 긍정적인 정서도 나타났다. 사실 이혼은 더 이상 부부관계 및 가정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상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 그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 대처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정적 정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혼에 따른 필연적 적응 과정, 이혼 후에 도래하는 문제들,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 등이 작용한다고 하겠다. 이혼 이후의 경제적 상태가 최하위로 지각하거나(표 4), 사회적 기반이 약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거나(표 4), 이혼 이후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전문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표 6) 하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 상태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혼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부모-자녀 등 삼자간의 특성은 드물지만 '부부관계에 자녀 끼워 넣기'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분리' 2가지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전자는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 이론가인 Minuchin(1974)의 '경직된 삼각관계'에 속한다. 그는 경직된 삼각관계로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자녀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는 어느 쪽 부모에게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상태에 빠지거나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을 표면화시키기 않기 위해 자녀를 문제 자녀나 허약한 자녀로 부각하여 자녀와 지나친 교류를 가지는 양상이다(김유숙, 2002). 기존의 연구들이 이혼

전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자녀를 포함한 삼각 관계를 이루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혼 과정 혹은 이혼 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면접에서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여 자녀로서는 충성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이혼 과정이 그리 순조롭지 못하고 상당 기간 갈등이 지속된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부모 자신들의 갈등과 자녀의 입장을 심리적으로 분리하여 대처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반면, 부부관계의 악화와 단절로 이혼에 이르렀으면서도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분리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지속시키는 태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건강한 가족에서 개인들은 분화되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모의 상당한 정서적 힘과 자녀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수적인 요소인 듯하나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의 가족상담과 치료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혼에 있어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혼을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이혼 후에 어떤 태도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알렸는지를 확인하였다. 전형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일방적 통보였다. 드물지만 일반적 이혼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눈 유형도 있었고 자녀의 입장을 배려한 입장도 있었다. 그러나 일방적이거나 배려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혼

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자녀문제로 망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배려와 관련된 행동이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 이후의 부모의 태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드물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을 희생하거나 주위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적극성이 전형적인 유형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는 자녀를 배려할 만큼의 여유와 정보나 준비가 없다가 일단 이혼 이후에는 적극적 자세로 바뀐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혼 관련 프로그램은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자녀 배려 양식을 훈련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정서, 행동, 진로 등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적응의 어려움 만큼 잘 적응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유형도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편안함과 독립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 영향도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 자신이 이혼을 통해 평안과 안녕 그리고 새출발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에게서 비슷한 상태를 지각할 것이고 생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 이혼한 당사자 부모가 이혼에 대해 긍정적 생각과 지각을 형성하도록 하는 훈련은 건강한 자녀 양육에도 필수적 과정일 것이다.

이혼 이후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누구에게 요청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준비 없이 행한 이혼은 경제적 문제와 양육의 어려움이 전형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편견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호소되었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반 정도씩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전형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하였고 친인척이나 이웃들에게 드물지만 요청되었다. 여성 쉼터가 주 활용전문기관이었다. 여성 쉼터는 폭력가정의 경우 이혼하기 전에 많이 활용되는 기관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적절한 기관이라고 하겠다. 역시 도움 받기 원하는 내용도 어려움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과 전문가의 전문적 도움이 요청되었다. 전문가에는 쉼터, 상담기관,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혼관련 전문가들의 육성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혼한 부모들은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며, 이혼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혼과정 또는 이후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정보도 부족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혼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혼가정의 부모가 가장 원하는 도움내용 중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상담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과 전략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지지집단 프로그램 등도 개발되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결과 드러난 도움을

원하는 내용 중 악화된 부모자녀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이혼 후 자녀들의 적응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이는 가장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예방과 치료적 의미에서의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을 기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의 수가 8명으로 비교적 소수이며, 이혼 시기도 1년전에서 6년전으로 다양하다. 표집대상의 성별이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져 남성 이혼자는 한명뿐이어서 아버지로서의 이혼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것이다. 면접의 대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상담실과 이혼관련기관에 면접조사 참여의사를 문의하여 동의를 구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기관을 활용하는 이혼 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 면접자의 수가 많아졌다. 실제로 남성 이혼자들이 겪는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남성 이혼자 아버지에 적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사례들의 조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동거와 비동거, 이혼사유 차이, 자녀의 형제 분리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그리고 이혼 후 얼마나 지난 상황인가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보고 선행연구들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

제를 차후의 연구에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배희 (1994). 위기에선 가족: 한국가족의 변화와 전망, 다산출판사
- 김남숙 (199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정, 권신영 (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김순옥 (1993). 이혼대책에 관한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 김승경, 강문희 (2005).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 요인들 간의 경로 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 김승연 (2001).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위기대응 전략에 대한 생애사 연구: 문화지향적 상담의 사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숙 (2002).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혜련 (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현숙, 김득성 (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99-120.
- 박한샘 (2003).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상명대 학생생활연구 16, 125-147.
- 박한샘, 전명희 (2003). 이혼부모의 자녀양육관련 상담분석; 사이버 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1(1), 137-151.
- 방선옥 (1992). 이혼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화순 (1997). 현대가정의 이혼실태와 제반문제. 한국인간발달학회 1997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 성정현 (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 53-78.
- 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 (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18, 29-58.
- 유경희, 김기중 (200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이혼(별거)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03-119.
- 유희정 (2005). 이혼 후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185-217.
- 이용준 (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혜경, 민가영 (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주소희 (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 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한경혜, 김영희 (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회지 6, 103-128.

- 홍순혜 (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복지학 17, 151-177.
- Bohannon, P. J. (1970). The six nations of divorce. In P. J. Bohannon(ed.), *Divorce and After*.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Inc.
- Carroll, P. J. & Frazee, E.(2001). Program can help protect children in break-ups. *New York Law Journal, January*, 64-78.
- Commaille, J. (1982). *Families Sans Justice*. Pars: le Centurion.
- Goode, W. J. (1956), *Women in Divorce*. New York: The Free Press.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itrou, A. (1994). *Les Politiques Familiales, Approches Sociologiques*. Paris: Syros.
- Thry, I. (1993). *Le K mariage*. Paris: Editions Odile Jacob.
-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 Weis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Y. & Sandler, I. N. (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vuffers of divorce stressor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87-95.

원 고 접 수 일 : 2005.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2. 31

게 재 결 정 일 : 2006. 2. 2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Divorced parents in the Relationship with Adolescents

Jeong-Yi Ryu^{*} Myoung-Ja Keum^{**} Ji-Eun Lee^{***} Ho-Jun Lee^{**} Su-Ri Kim^{**}

^{*}Anyang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better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divorced parents in the relationship with adolescents. We interviewed eight divorced parents and analyzed data using the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developed by Hill, Thompson, Williamson(1997). The results of the CQR analysis were as follows; 1) General experiences of divorced parents were categorized into 14 domains and 40 core ideas, including 10 typical core ideas. 2)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s, during and after divorce, included 5 typical core ideas, such as one-way informing adolescent on parents' decision of divorce, continued active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fter divorce, mal-adaptation, good adaptation, and negative emotional responses. 3) Financial stress and child-rearing problems were found as majo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divorce. Respondents indicated their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in addition to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Key words : divorce, CQR, parents-adolescents relationship